

예수의 교육원리와 현대적 의미

최 준 규

가톨릭대학교

〈요 약〉

본 논고는 예수의 교육론을 고찰하고 그 현대적 적용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예수 교육의 특성은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뿐 아니라 배우는 사람으로서의 교사성, 전통적인 장소와 비전통적인 장소를 적극 활용한 교육 방법, 그리고 구약성서의 하느님 나라의 개념을 재해석한 교육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그의 교육원리는 피교육자의 인격적 특성을 존중하는 개별성의 원리, 피교육자들로 하여금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깨닫고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자율성의 원리, 여성과 어린이, 병자와 죄인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초점을 맞춘 케노시스의 원리, 당시의 억압적인 사회적·종교적 규정과 인습을 재해석한 독창성의 원리, 그리고 스승인 동시에 친구와 형제로서 함께 하고 모범을 중시하는 공동체의 원리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수의 교육원리는 오늘날 공동체성을 상실하고 '모범을 통한 교육'을 간과하는 우리 교육이 실현할 전인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핵심 주제어 : 예수의 교육론, 교사 예수, 예수의 교육원리

I. 서 론

과연 예수를 교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 과연 역사적 예수는 오늘날 감각에서마저 역시 교사라고 볼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예수의 교육론’이란 주제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들이었다. 이런 질문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먼저 교육사(教育史)적으로 볼 때, 지식 전달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체계적 교육 과정은 회람시대의 산물인 반면, 예수 당시의 유대 교육은 주로 경험적·비형식적 교육이었다.¹⁾ 또한 신학적으로 볼 때, 예수는 일차적으로 교사로서의 역할보다는 ‘하느님나라’라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실현하는 자로 이해되어 왔다. 실제로 복음서²⁾ 안에 나오는 예수의 가르침(didache)들은 대부분 그가 선포(kerygama)한 내용들을 보충 설명하는 부가적 역할을 한다.³⁾

그럼에도 ‘예수는 위대한 교사’로 보는 연구들은 많다. 하지만 어떤 연구자들을 자신의 신앙적 열성 때문인지, 객관적인 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예수는 우리의 훌륭한 교사’라는 결론을 서두르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들이 신앙의 대상인 예수에게 현대적 의미의 이상적인 교사상을 성급하게 투사시키는 시도는 오히려 연구의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예수의 교육론을 연구할 때에 주의할 점은 현대 교육학의 틀에 맞추어 역사적 예수의 교육을 재단(裁斷)하는 접근을 피하는 대신, 역사적 예수에 대한 유일한 자료인 복음서를 천착(穿鑿)하여 그의 진정한 관심과 교사의 면모를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음서를 보면, 역사적 예수가 가졌던 진정한 관심은 ‘하느님 나라’였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직접 통치를 의미하는 유대인의 신앙 고백이었다. 즉 하느님 나라는 기존의 인간적인 정치·경제·사회의 질서에 더 이상 희망을 두지 않고 하느님의 직접 통치가 펼쳐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강렬한 전망이었다. 예수는 역시 임박한 새로운 세상인 하느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에 부합한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갖도록 ‘회개(悔改)’를 촉구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람들을 가르쳤다. 만일 예수에게 보통 교사와 구별되는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가 새로운 세상(하느님 나라) 건설이라는 강한 비전을 지녔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했으며, 결국 그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이 글은 예수의 교육론을 고찰하고 그 현대적 적용을 논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복음서를 근거로 예수 교육의 특성을 예수의 교사성, 교육장소, 교육 내용의 순서로 서술한 후, 그의 교육원리를 독창성의 원리, 개별성의 원리, 자율성의 원리, 케노시스의 원리, 공동체의 원리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1) 정웅섭, 「教師 예수의 교육」, 『기독교사상』 123권 (1979), 119쪽.

2) 복음서는 마태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요한복음을 말한다. 이 글에서 사용되는 성경구절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발행한 『성경』 (2005년 3월 인준)이다.

3) 정웅섭, 위의 글, 120-121쪽.

의 교육원리가 우리 교육에 주는 의미에 대해 공동체 교육, 모범을 통한 교육, 그리고 전인 교육이라는 소제목 아래 정리하였다.

II. 예수교육의 특성

1. 예수는 어떤 교사였는가

예수가 교사였다는 증거는 복음서에서 세 가지 근거로부터 발견된다. 첫째 근거는 예수가 제자들, 일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그를 경계하고 적대시했던 바리사이(마태 12,1-8. 38-42; 22,15-22)와 사두가이(마태 22,23-38) 그리고 율법학자(요한 3,1-12)를 가르쳤다는 점이다. 둘째 근거는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를 선생 혹은 교사로 불렀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예수가 그런 것을 명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랍비(rabbi, 선생님),⁴⁾ 랍부니(rabbuni, 나의 선생님),⁵⁾ 혹은 디다스칼로스(didaskalos, 교사, 가르치는 사람)⁶⁾로 불렀다. 셋째 근거는, 당시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은 사람들로부터 제자 혹은 학생으로 번역되는 히랍어 ‘마테테스(mathetes)’로 불렸는데, 이 단어는 복음서 안에서만 250회 가량 사용되었고, 그리고 거의 항상 예수의 추종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는 점이다.⁷⁾

그러나 성서학적 견해에 의하면, 예수가 일반적인 의미의 교사라는 점을 약화시키는 다른 근거들이 있다. 첫째로, 공관 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자신을 직접 지칭하여 ‘선생’이라고 말 한 것은 각각 한번뿐이라는 것이다. 한번은 마태오복음에서 예수는 마지막 만찬을 어디에 준비할까 하는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마태 26,18),⁸⁾ 그리고 또 다른 한번은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준 다음 예수가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

4) ‘랍비’는 공관복음에서 35번, 요한복음에서 7번 나타난다. L.J.웨일, 『기독교교육의 발생』, 이숙종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17쪽.

5) ‘나의 선생님’이란 뜻의 아라메아어 존칭으로 히브리어 존칭인 ‘랍비’보다 더 정중하고 엄숙한 의미를 지닌다; 참조 이영현 역주, 『요한복음서』, 분도출판사, 1997, 366쪽; 구본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론에 근거한 전인교육과정 연구」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10쪽에서 재인용.

6) ‘didastein’ (가르치다) 동사는 예수에 관해서 마태오복음에 9번, 마르코복음과 루카복음에 각각 15번, 그리고 요한복음에 8번 사용되었다. 또 마르코에서는 ‘lego’(말씀하다), ‘eipon’(말하다), ‘phemi’(말하다) 같은 예수의 교훈기사를 시작하는 단어를 마태오복음에 14번, 마르코복음에 7번, 루카복음에 2번을 사용되었다. 정웅섭, 위의 글, 122쪽.

7) 게르하르트 키텔 · 게르하르트 프리드리히, 『新約聖書 新學辭典』, G. W. 브라밀리 편역, 번역위원회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6), 1901쪽.

8) L.Magness,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Gospels: The biblical basis of Christian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Nov.-Dec., 1975, p.629.

회가 나를 ‘스승님(didaskalos)’,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요한 13,13-14) 라고 말한 대목뿐이다.⁹⁾

둘째로, 제자들이 예수를 ‘스승’으로 부르고 장면은 복음서 안에서 불과 다섯 군데뿐이다. 그나마 그 중 네 번의 상황들은 제자들의 체면이 형편없이 구겨지는 장면이다. 즉 제자들은 자신이 풍랑에 시달리다가 위급해졌을 때(마르 4,38), 다른 제자들의 기적행위를 질투할 때(마르 9,38), 제자들이 성전의 외적 아름다움을 철없이 경탄할 때(마르 13,1), 그리고 제자 두 사람이 예수께 권력의 자리를 청할 때(마르 10,35), 예수를 ‘선생’이라고 부른다.

셋째로, 선생이란 단어는 대부분 예수를 반대하거나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들로부터 언급된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들은 바리사이(마르 9,11), 사두가이(루카 20,28), 율법학자(마르 12,32), 헤로테 당원(마태 22,16), 대사제(마르 12,14), 세관원(마태 17,24), 부자 청년(루카 18,18), 실망한 아버지(마르 9,17)이다.¹⁰⁾

그렇다면 예수가 실제로 ‘항상’ 가르쳤다는 사실과 이에 대비되는 회소한 예수 자신의 ‘선생’에 대한 언급 그리고 선생 호칭의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모순적 패러독스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패러독스로부터 우리는 예수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범한 교사가 아니라는 점을 유추하게 된다. 그 근거는 두 가지이다. 첫째, 복음서의 저자들이 전달하고 싶어 하는 바는, 예수는 자신에 대하여 믿음이 약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악의를 가진 사람들에게마저 가르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이다. 둘째, 복음서가 보다 중요하게 부각시키려고 했던 바는 예수가 단순한 선생이나 교사 이상의 존재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를 선생(교사)으로 보다는 주인님(Master), 주님(Lord), 구원자(Messiah)로 불렀다.¹¹⁾

그리고 교사 예수의 또 다른 특이점은 자신이 교사가 아니라 배우는 학생이라는 자의식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며 아버지로부터 배운다는 점을 밝히면서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요한 8,28)고 하였다. 또한 성령을 지칭하여 ‘가르쳐주는 분’으로 고백한다(루카 12,12).

이런 예수의 교사로서의 독특한 모습은 그가 가르침을 행한 장소의 다양성에서도 역시 드러난다.

2. 예수는 어디에서 가르쳤는가(교육장소)

예수는 어디에서 가르쳤는가? 미리 정해진 장소에서 확정된 시간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9)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적 권고 『현대의 복음선교』 (Catechesi Tradendae, 1979.10.16 공포),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4), 8항 참조.

10) 같은 글, p.630.

11) 마태, 8,8; 19,27과 병행 구절들; 루카 7,6-7과 병행 구절들; 요한 11,21.32와 병행 구절들.

현대의 교육과는 달리, 예수는 가르칠 때, 전통적 의미의 교육 장소와 비전통적 교육 장소를 모두 자유롭게 사용하였다.¹²⁾

우선 예수의 교육 장소 중 하나는 성전(temple)이었다. 그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교육의 장소를 존중하였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토론하였다는 기사는 복음에 자주 언급되고 있다. 복음서는 예수가 ‘날마다’ 성전을 자신의 교육의 장소로 사용했다는 예수 자신의 증언을 전해준다. “내가 날마다[연구자 강조]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다”(마태 26,55). 특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바로 전 주까지도 늘 하던 대로 성전에서 가르침을 행했다. “예수님께서서는 날마다[연구자 강조]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루카 19,47).

예수의 또 다른 교육 장소는 회당(synagogue)이었다. 성전과 마찬가지로 회당은 유대인의 종교적 삶의 중심이었고 예배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였다. 예수 역시 어려서부터 회당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던 체험이 있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안식일에 갈릴래아와 유다 지방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쳤다(루카 4,15,44). 복음서는 회당에서 벌어졌던 예수의 공생활 초기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통해 회당을 중심으로 한 그의 활동의 일면을 전해준다. 즉, 마르코복음 1, 21절 이하의 예수가 그의 초기 기적에 해당하는 더러운 악령에 들린 사람을 고쳐준 기적이 그가 카파르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칠 때 벌어졌던 사건임을 기록하였다. 또한 루카복음 4장 16절 이하의 예수의 고향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대하여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루카 4,22)라는 반응을 보인 곳 역시 그의 고향 나자렛에 있는 회당이었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예수는 회당이라는 장소가 자신에게 얼마나 익숙한 지를 설명하였다. “나는 언제나 유대인이 모인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요한 18,20).

그러나 예수의 교육 장소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장소인 성전과 회당에 국한되지 않았다.¹³⁾ 그의 가르침은 어떤 곳에서나 벌어졌다. 그는 도시(마태 11,1), 마을(마르 6,6), 산(마태 5,2), 또는 바닷가(마르 2,31), 배 안(루카 5,3), 혹은 길거리(마르 9,31)에서 가르쳤다. 그에게 특별히 교육하기에 적합한 장소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가르쳤다. 예수의 대상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으나, 그 외에 희랍인(요한 7,35)과 사마리아인(요한 4)도 있었다. 때로 그들은 소수인 제자들이기도 했고(마태 11,1), 수많은 대중이기도 했다(마태 9,31).

예수는 자신의 교육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교육 장소인 성전과 회당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강력하고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또한 이런 전통적 장소가 죄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올 수 없는 장소임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¹⁴⁾ 그래서 전통적 장소와 비전통적 장소를 모두 활용하는 예수의 교육 방법은 오늘날 정해진 장소에서 공적으로 구조화된 교육에 국한하여 시행하는 우리의

12) 이회능, 「마태복음 25: 14-30에 나타난 예수의 교육원리」, 『기독교교육정보』, 제12집, 220-222쪽.

13) 위의 글, 121쪽.

14) Magness, 앞의 글, p.633.

정규 교육을 개선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있다.

3. 예수는 무엇을 가르쳤는가(교육내용)

예수는 무엇을 가르쳤을까? 예수가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 전달하려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성서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 그것은 ‘하느님 나라’였다. 예수는 자신의 가르침과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하느님 나라의 주체로서의 메시아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맞이하는 이들의 의무는 무엇이지를 알게 하려고 노력했다.¹⁵⁾

‘하느님 나라’(basileia)는 복음서 안에서 다른 주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조되었다. 연구에 의하면, 복음서 안에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가 100여 번이나 언급하였으며,¹⁶⁾ 그 언급의 핵심은 하느님의 나라가 아주 가까이(혹은 이미) 왔으므로 하느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도하고 추구해야 하며, 신비인 하느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 귀 기울여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⁷⁾

사실 하느님 나라는 예수의 창작물이 아니라, 구약성서와 후기 유다이즘에서 회자되어 오던 개념을 도입된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자유인이 되게 하신 ‘해방의 하느님 야훼’의 개념은, 훗날 왕정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왕이신 하느님’이라는 개념으로 변화되었다. 즉 하느님은 창조활동과 해방의 행위를 보여주신 바로 그 하느님이며, 그분이 이제 위대한 왕으로 온다(시편, 45편; 74편; 92편; 95-98편).¹⁸⁾ 나아가 후기 유다이즘에 와서 하느님 나라는 메시아 사상과 연결을 갖게 되는데, 종말에 메시아가 나타나 하느님 나라를 지상에 건설할 것이며, 이 나라는 ‘사제들’의 왕국, ‘거룩한 자들’의

15) 정웅섭, 앞의 글, 127-128쪽

16) 연구자마다 복음서의 하느님 나라 언급에 대해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조규만은 하느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마태오 복음에 50번, 마르코 복음에 15번, 루카 복음에 41번으로 말하고 있고, J.Dupont은 예수가 친히 발설한 경우만을 계산하여 마태오 복음에 36번, 마르코 복음에 13번, 루카 복음에 21번, 요한 복음에 2번으로 보았다. 한편 R.Morgenthaller는 마태오에 55번, 마르코에 20번, 루카에 46번으로 계산하였다. 조규만, 『하느님 나라』,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5), 62쪽.

17)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혹은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하였다(마르 1,15; 11,10; 마태 3,2; 4,17; 10,7; 12,28; 루카 10,9,11; 12,20; 17,20; 19,12; 21,31).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마태 2, 10; 루카 11,2). 하느님의 나라는 신비이다(마르 4, 11; 마태 12,28; 13,11; 루카 8,10; 11,20). 하느님의 나라는 구원의 시기에 있을 잔치이다(마르 14,25; 마태 8,11 이하; 루카 22,10-19). 하느님의 나라는 어린이의 것이요 가난한 이에게 기쁜 소식이다(마르 10,14 이하; 23,25; 마태 5,3; 11,11; 21,31; 루카 12,32). 하느님 나라의 도래는 긴박하다(마르 1,15; 9,1; 마태 11,12; 루카 10,11). 하느님 나라는 인간이 제일 먼저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마태 6,33; 19,12; 루카 9,62). 신비로서의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마음의 사세를 요구한다(마태 13,19; 루카 8,10). 조규만, 위의 책, 61-62쪽.

18) 조규만, 앞의 책, 58쪽.

왕국이요,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께서 친히 통치하는 왕국이라는 것이었다.¹⁹⁾

예수는 구약과 후기 유다이즘에서 유래한 하느님 나라를 재해석 하였다. 예수는 하느님 나라를 종말적 심판이라는 후대 유다이즘의 개념에서 자비와 사랑의 하느님 통치라는 기쁜 소식이라는 개념으로 바꾸어 전달하였다. 예수의 하느님 나라는 이전에 한 번도 지상에서 실현되지 않았던 이상적인 하느님 통치의 실현이었다. 그리고 예수의 하느님 나라는 질병, 기아, 절망, 자포자기, 죄, 악, 사탄의 세력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났다.²⁰⁾

하느님 나라는 희랍어로 ‘바실레이아 투 데우 basileia tou theou’다. 이 단어의 영어 번역은 ‘하느님의 왕국’(the Kingdom of God)이지만 적절한 번역이 아니다. 이것은 마치 하느님의 나라가 하느님이 거처하신 곳, 혹은 신자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일종의 장소 개념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basileia’는 동사 ‘basileou’(통치하다)에서 나온 명사로서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동사적인 실행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basileia’의 영문 번역은 ‘the reign of God’ 혹은 ‘the rule of God’이 적절하다.²¹⁾

같은 맥락에서, 성서학자들은 예수가 하느님 나라에 대하여 한 번도 하느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정의한 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수는 하느님 나라를 비유를 사용하여 은유적으로만 표현하였다.²²⁾ 예를 들어, 씨 뿌리는 사람(마르 4,3-8), 자라나는 씨(마르 4,26-29), 겨자씨(마르 4,30-32), 포도원 소작인(마르 12,1-11), 무화과나무의 교훈(마르 13, 28-29), 깨어 있는 종(마르 13, 33-37) 같은 비유들은 대부분 “하느님 나라는 … 에 비길 수 있다” 또는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라는 도입구로 시작한다. 따라서 예수는 하느님 나라를 특정한 ‘장소’의 개념으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구약성서학자 안병무는 비유들에 대해 “하나같이 하느님 나라가 사람에게 어떤 현실을 가져오느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 나라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²³⁾ 하느님 나라는 그것에 참여한 이들이 맛볼 수 있는 현실이다. 그 현실은 하느님 나라를 얻은 사람들의 누리는 ‘기쁨’이다. 복음서는 이미 하느님 나라를

19) 조규만, 위의 책, 58-60쪽.

20)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치유(마르 1,21-28; 5,1-20; 7,24-30과 그에 병행하는 마태오와 루카의 치유 전승), 열병을 앓는 사람의 치유(마르 1,29-32와 그에 병행하는 마태오와 루카의 병행 구절), 나병환자의 치유(마르 1, 40-45와 그 병행 구절들), 중풍병자의 치유(마르 2,1-12와 그 병행 구절들; 마태 8,5-13과 그 병행구절들; 요한 5,1-8),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치유(마르 3,1-6과 그 병행 구절들), 하혈병의 치유(마르 5,25-34와 그 병행 구절들), 귀먹은 반병어리의 치유(마르 7,32-37; 마태 9,32-34; 루카 11,14), 소경의 치유(마르 8,22-26; 10,46-52와 그 병행 구절들; 마태 9,27-31; 12,22; 요한 9,1-34), 악령의 발작으로부터 고쳐 주신 이야기(마르 9,14-29와 그 병행 구절들) 등이 있다. 조규만, 앞의 책, 110쪽.

21) 정승우, 『예수, 역사가가 신화인가』, (서울: 책세상, 2005), 113-114쪽.

22) 같은 글.

23) 안병무, 『갈릴래아의 예수』,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116쪽.

누리는 사람들의 기쁨에 대해 많은 증언을 하고 있다. 즉, 마태오복음 13장은 하느님 나라를 발견한 자의 기쁨을 밭에 감춘 보물을 발견한 장사꾼의 기쁨에 비유하고 있으며, 루카 복음은 이를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루카 15, 3-7),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인의 기쁨(루카 15,8-10),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루카 15,11-32)을 전하고 있다.²⁴⁾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예수는 하느님 나라가 이미(already) 시작되었지만 아직(yet)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²⁵⁾ ‘이미’와 ‘아직’의 하느님 나라는 이를 맞이하는 이들에게 긴박한 긴장을 불러일으킨다. 이들에게 이미 현실로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중간적 시간’은 아주 중요하다. 이 시간에 자신의 태도를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사는지 여부가 하느님 나라에 합당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별 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회개하라고 거듭 외쳤다. 마르코 복음은 예수가 공생활 시초에 제일성(第一聲)으로 하느님 나라와 회개의 삶을 외치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마르 1, 14-15).

III. 예수의 교육원리

도래하는 하느님 나라에 직면하여 회개하라는 예수의 선포는 교육적 방법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었다. 예수는 다양한 교육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²⁶⁾ 그의 교육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육 원리를 찾아볼 수 있다. 교육원리란 교육자가 교육행위를 하는 데 기준이 되는 개념적·실천적 틀(frame work)을 말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의 기획, 실행, 평가의 준거라고 정의할 수 있다.²⁷⁾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교육 안에서 5가지 교육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독창성의 원리(Principle of Originality), 개별성의 원리(Principle of Individuality), 자율성의 원리(Principle of Autonomy), 케노시스의 원리(Principle of Kenosis), 그리고 공동체의 원리(Principle of Community). 이 원리들은 상호 배타적으로 구분되기 보다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중첩되는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24) 정승우, 위의 책, 115-116쪽.

25) 조구만, 위의 책, 122쪽.

26) 이회능, 앞의 글, 221-222쪽.

27) 오인택 외, 『기독교교육사』 (서울: 도서출판 교육목회, 1992);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교육학 용어 사전』, 1999.

1. 독창성의 원리(Principle of Originality)

독창성이란 기존의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창조력을 활용하여 재해석하고 고유의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은 말한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의 교육적 독창성은 하느님 나라의 해석, 교육장소, 비유 사용, 그리고 관습의 재해석에서 드러난다.

첫째, 예수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하느님 나라의 전통적인 개념들을 자신의 교육 행위 안에서 재해석하였다. 그는 미래에 도래할 하느님 나라를 자신의 교육적 비전으로 삼으면서, ‘이미’와 ‘아직’의 종말론적 현실을 직면한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촉구했다.

둘째, 예수 교육의 독창성은 그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전통적인 교육 장소인 성전과 회당 뿐 아니라 촌락이나 길을 걷다가 심지어는 배 위와 같은 비형식적 장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에서도 드러난다.

셋째, 예수의 교육적 독창성의 또 다른 예는 그의 탁월한 비유 사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레미아스(J. Jeremias)에 의하면, 복음서에 나온 예수의 비유는 무려 40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하다.²⁸⁾ 비유란 영어 ‘parable’인데, 희랍어 파라볼레(parabole)에서 기원을 두고 있다. 성서학자 Dodd는 파라볼레를 정의하면서 “비유란 자연이나 일상생활에서 이끌어낸 은유나 직유를 말한다. 생생하고도 낮은 이미지로 듣는 사람들의 관습적인 상식에 도전하며, 기존 질서에 의혹을 지니게 만들으로써 비유가 전하는 전복적인 이야기의 세계에 참여케 만든다”고 말한다.²⁹⁾ 그렇다면 왜 예수는 이토록 많은 비유를 사용했을까? 그 이유는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당시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라는 구약의 개념은 너무나 익숙하였기에 굳이 상세한 설명이 필요 없었거나, 둘째로, 대상자들이 대부분 하층민이었기에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이야기로 하느님 나라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거나, 마지막으로, 비유가 주는 의미의 다중성을 활용해 하느님 나라가 지닌 스펙트럼에 대해 상상력을 발휘하게 만들기 위해였을 것이다.³⁰⁾

마지막으로, 그의 독창성은 기존의 잘못된 가치관과 율법을 재해석하거나 폐기하는 대목에서도 드러난다. 예를 들면, 예수는 당시의 ‘식탁 교제’의 관행을 배격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바리사이들처럼 끼리끼리만 모여 먹었는데, 혹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식탁에 초대되는 경우엔 주인이 손님에게 깨끗한 옷을 제공하고 다른 방에서 식사를 하도록 배정하였다. 예수는 의도적으로 당시의 식탁 문화를 부정하고 죄인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었다. 그리고 예수는 자주 하느님 나라를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잔치’에 자주 비유하면서(루카 13, 29; 14, 15; 22, 30),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모여 축제의 음식을 먹는 것은 하느님 나라의 중요한 모티브임을 드러내었다.³¹⁾

28) 40개 비유에 대하여, 조규만, 앞의 책, 94-95쪽 참조.

29) Charles Harold Dodd, The Parables of the Kingdom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1), p.16; 정승우, 앞의 책, 104-105쪽에서 재인용.

30) 정승우, 위의 책, 105-106쪽.

2. 개별성의 원리(Principle of Individuality)

개별성의 원리란 교육의 초점을 개인 학습자에게 두고 학습자 개인의 능력, 적성, 동기를 고려하여 적절하고 타당한 수업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³²⁾ 예수의 교육이 지닌 개별성의 원리는 먼저 그의 가르침이 언제나 사람들과 개별적인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의 첫 번째 제자들은 모두 예수와의 개별적인 만남을 통해 불림 받았다(요한 1, 35-51). 또한 바리사이인 니코데모도 예수와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배웠으며(요한 3, 1 이하), 사마리아의 여인도 그러했고(요한 4, 1 이하), 38년 동안 앓고 있던 병자(요한 5, 1 이하), 간음하다 잡힌 여인(요한 8, 1 이하), 마리아(요한 12, 1-8) 등도 예수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었다.

또 개별성의 원리는 예수가 각기 다른 개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그들의 특성에 맞게 교육한 데에서도 드러난다. 예를 들면, 예수의 제자들은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변화가 심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요한은 젊고 동정할 수 줄 모르는 성품을 지녔으며, 마태오는 세관원으로 멸시를 받는 존재였다. 그러나 예수는 이들의 개성을 살려 베드로는 용감하고 충실한 인물로, 요한은 사려 깊고 사랑스런 인물로, 그리고 마태오는 섬세하고 정확한 인물로 성장시켰다.³³⁾ 호온(Horne)은 복음서 안에서 예수가 개별적인 만남을 통해 약 60명의 개인을 나열하면서, 예수가 이들의 개인적 필요, 동기, 태도를 파악하여 이에 맞는 교육시켰다고 보았다.³⁴⁾

홍은경은 예수의 탁월한 교육방법은 일대일 관계를 맺는 방법에 있으며, 베드로를 이끌었던 예수를 멘토의 역할로 보았다.³⁵⁾ 홍은경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가 자신을 세 번씩이나 배신했던 베드로의 경우를 예로 들어, 예수가 어떻게 베드로를 교육하는지를 멘토링의 8가지 원리를 적용하여 설명한다. 즉 예수는 자신을 배신하고 옛 생활로 돌아간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찾아가기), 베드로를 아무 일이 없던 사람처럼 대하고(지켜보기), 그에게 ‘고기를 잡았나?’하고 묻고(반성시키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하고(가르치기), 고기를 많이 잡는 체험을 하게하고(기회주기), 불을 피워 잡은 물고기를 함께 굽고(적용결과 반성하기), 함께 구운 고기를 먹고(채워주기), “시몬아, 내 양들을 치라”하고 말하였다는 것이다(확증하기).³⁶⁾

요한복음의 같은 대목(21장)에 대하여, 심승환은 베드로가 깨달음과 믿음에 도달하는 과

31) 같은 책, 133-136쪽.

32) 이회능, 앞의 글, 241쪽.

33) J.M. 프라이스, 『선생 예수』, 박영록 역, (서울: 침례회출판사, 1978), 55-56쪽.

34) H.호온, 『예수님의 교육방법론』, 박영호 역, (서울: 양영각, 1984), 176쪽.

35) 홍은경, 「예수에게 배우는 멘토링 원리: 교사교육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제10권 제1호, 159-199쪽.

36) 홍은경, 앞의 글, 180-190쪽.

정을 제자와 스승과의 ‘상호작용’으로 해설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³⁷⁾

3. 자율성의 원리(Principle of Autonomy)

예수 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그가 피교육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먼저 예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주입식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배우는 이들이 가진 호기심과 정서, 흥미와 필요를 먼저 파악하여 그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의 피교육자들에 친숙한 소재들인 씨뿌리는 일, 씨앗, 밀과 가라지, 겨자씨 등을 활용하여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메시지를 그들이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 혹은 거부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다.³⁸⁾

자율성의 원리의 두 번째 측면은, 예수가 사람들에게 진리를 주입한 것이 아니라 깨닫도록 힘쓴 점이다. 진리 추구란 본질적 목적은 아는 데에 있지 않고 깨닫는 데에 있으며, 진리를 선택하는데 있지 않고 따르길 결심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깨달음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총체적인 전환을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대목(요한 4,1-42)을 보면, 예수는 처음에 여인에게 물을 청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였지만, 종국에는 여인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구원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도한다.³⁹⁾

4. 케노시스의 원리(Principle of Kenosis)

케노시스는 바오로의 필리피서 2장의 ‘로고스 찬가’에 나오는 개념으로, 육화(incarnation)의 다른 표현인 겸손(humiliation) 혹은 비움(emptying)을 의미하는 희랍어 케노우(kenou)에서 나온 파생 명사이다. 즉 케노시스는 필리피 2장 7절에서 “오히려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라는 표현으로 드러나는 예수의 겸손함과 낮춤을 말하는 것이다. 신학적으로 예수의 케노시스는 육화의 신비와 빠스카의 신비를 포함하는데,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신 신비와 목숨을 바쳐 죄인인 인간을 구원한 예수의 사랑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이다.⁴⁰⁾

교육적으로 볼 때, 먼저 케노시스는 예수의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으로 그들에게 내려가는 ‘하강(下降)’의 움직임을 포함한다.⁴¹⁾ 예수는 당시의 가난하고 소외

37) 심승환, 「공자와 예수의 교육철학에 담긴 가르침과 배움의 상보적 관계」, 『교육철학』 제38집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05. 12), 129쪽.

38) 프라이스, 앞의 책, 75쪽.

39) H. Horne, *Jesus the Teacher*, (MI: Kregel Publications, 1998), pp.13-14.

40) J.M. Carmody, *Kenosis*, in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New Catholic Encyclopedia* (New York: McGraw-Hill, 1967), vol.8, p.154.

된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들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가르침을 하였다. 예를 들어, 예수는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보였다. 예수는 어린이를 축복했고(마태 19, 13-15),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으며(마태 18, 1-5; 19, 13-15), 어린이들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루카 18, 16).

당시에 또 다른 사회적인 약자는 여성이었다. 여성은 유대율법을 배울 수 없었고, 회당에서 가르칠 권한이 없었으며, 율법교사의 제자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은 여성들을 향해 있었고, 여성의 삶을 반영한 어휘로 가득 차 있었다. 예를 들면,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 잔치, 식탁, 땀돌 누룩, 옷 깎기, 물동이 등이었다. 그리고 예수는 여인들에 대한 일화를 많이 말하였는데 대부분 긍정적인 내용이었다. 예를 들면, 지치지 않고 탄원하는 과부(루카 18, 2-5), 전 재산을 바친 과부의 헌금(마르12, 41-44), 예수에게 충실했던 마리아와 마르타(루카 10, 38-42), 믿음을 포기하지 하혈하는 여인(마태 9, 18-26)이 그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여성을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였다는 사실(마르 15, 40)은 당시의 통념상 매우 놀라운 것이었다.⁴²⁾

케노시스 교육원리의 두 번째 측면은, 예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발언하고 행동을 하다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는 점이다. 어린이와 여성 외에 진정 유대 사회에서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은 병자들이었다. 당시 질병은 단순히 의학적인 개념이기 보다는 종교적인 개념이었다. 유대교의 정결법 규정에 따르면, 질병은 죄의 결과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병자들은 죄인으로 간주되어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다. 예수의 병자 치유는 이들의 사회적 복권으로 보아야 한다. 예수가 나병환자를 고친 후 사제에게 보이라고 말한 이유는 병에서 나온 이들 다시 공동체로 돌려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⁴³⁾ 특별히 율법이 무노동을 규정하는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병자들을 치유한 것은 비참한 병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당시의 유대교의 율법 체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었다. 결국 이는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심한 갈등을 불러일으켰으며 그의 십자가 죽음은 이런 갈등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⁴⁴⁾

5. 공동체의 원리(Principle of Community)

진정한 교육은 지식과 생활이 일치할 때 발생한다. 그래서 진정한 교육이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며, 삶의 모범을 통한 배움은 오랫동안 가슴에 새겨진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인 활동이어야 한다.⁴⁵⁾

41) J. 예레미아스,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450쪽.

42) 정승우, 앞의 책, 145-146쪽.

43) 정승우, 위의 책, 139-140쪽.

44) 정승우, 위의 책, 148-149쪽.

45) C.R. Foster, 『신앙공동체를 위한 교육』, 고용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139쪽.

예수는 자신의 사명을 (제자)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시작하였고, 자신의 사명의 결과로 (교회)공동체를 남겼다. 그는 제자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살았다. 마르코복음 3장은 예수가 제자 공동체를 형성한 이유에 대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과 함께 있고, 큰 능력을 갖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마르 3, 14-15).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 공동체를 통해 예수는 제자들과 깊은 우정의 관계를 형성하였다. 진정한 교육은 교사와 학생 사이가 교육적 관계(educative relationship)를 넘어 우정의 관계(friendship)로 들어설 때 가능하다.⁴⁶⁾ 예수는 제자들을 ‘친구’이라고 불렀고, 친구인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요한 15, 15). 뿐만 아니라 그는 친구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 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 12-13).

우정의 공동체를 형성한 예수가 제자들에게 행한 교육은 자신의 모범을 통해서였다. 모범은 학생에게 가장 효과적인 학습이며 가장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수법이다. 그는 제자들에게 “나에게 배워라”(마태 11, 29)고 했다. 공동생활을 통해 제자들은 스승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기도하고 식별하고 실천하는 것을 배웠을 것이고, 스승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고 가르치며, 치유를 행하고 마귀를 쫓아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갈등을 이겨내고 용서를 베푸는지를 보았을 것이다. 훗날 그들은 스승 예수가 했듯이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 시켰고(사도 2, 37-41) 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었으며,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스승의 참다운 모범은 학생에게 동일화의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동일화(identification)는 모방(imitation)과는 달리 모범적 대상과 강한 정의적 유대를 형성하는 영향력이 있다.⁴⁷⁾

IV. 예수 교육방법의 현대적 의미

예수의 교육 원리는 우리 교육의 문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남겼다. 이 장에서 예수 교육방법의 현대적 의미를 공동체적 교육, 모범을 통한 교육, 전인 교육이라는 주제 아래 정리하였다.

46) M. Buber, *Between Man and Man*, (NY: Macmillan, 1965), pp.100-101; 심승환, 앞의 글, 129쪽에서 재인용.

47) Kohlberg, 「Moral Development」,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Child Psychology: 62nd Year Book of the NSS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p.296; 구본만, 앞의 글, 27쪽에서 재인용.

1. 공동체적 교육

예수는 자신의 비전을 실현시킬 공동체를 형성했다. 공동체란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적을 공유하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을 위해 헌신하는 생활 방식을 말한다. 예수는 자신과 함께 하느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며 이것을 실현할 능력을 갖추도록 제자들을 공동체 안에서 훈련시켰다. 예수는 제자들을 단지 스승-제자의 관계로 설정하지 않았다. 그는 제자들을 공동체 안에서 형제 혹은 친구로서 지내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공유했다(마르3, 14-15).

교육이란 본래 공동체적이다. 진정한 교육은 교육과 생활의 일치가 가능한 형식과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⁴⁸⁾ 그래서 교육사를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육은 원칙적으로 스승과 제자가 함께 생활하는 방식을 취했었다. 공동체적인 방법 안에서 교육의 효과는 증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소위 탁월한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학교들 중에 기숙학교(boarding school)가 많은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활하며 교육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공동체적 교육을 한다고 말할 수 없다. 공동체적 교육이란 단순히 함께 모여 생활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공동체란 같은 목적을 공유해야 함을 전제로 하는데, 이때 목적은 공동선을 위한 이타적인 비전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예수가 제자들을 하느님 나라라는 공동선의 비전을 공유하도록 비유와 행적을 통해 가르친 것에 알 수 있듯이, 학교 구성원들의 비전과 목적의 공유는 공동체적 교육의 제1원칙이다. 만일 어떤 기숙학교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활하면서도, 제각각 다른 비전과 목적을 가질 뿐 아니라, 심지어 그것이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 즉 개인의 진학과 출세로만 이루어진 동기와 목적이라면 결코 공동체 교육이라고 말할 수 없다.

2. 모범을 통한 교육

예수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모범을 통해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제자들을 교육했다. 그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은 일차적으로 바로 자신이었다.⁴⁹⁾ 제자들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곁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제자들은 스승의 겸손과 비움의 모범을 통해 어떻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연민과 존중을 표현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고, 특별히 병자의 육체적인 치유 뿐 아니라 사회적·심리적인 상태의 복원을 염두에 둔 헌신을 지켜볼 수 있었다. 나아가 제자들은 당시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을 살아내는 것임을 배웠고, 또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스승의 모습을 목격하였다.

48) 오인택, 「기독교와 인격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2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66), 70쪽.

49) 정웅섭, 앞의 글, 224쪽; Magness, 앞의 글, p.632.

좋은 교사로부터 좋은 교육이 이루어진다. 좋은 교사는 우선 자신의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고 언행이 일치하는 교사이며, 나아가 학생들을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귀한 영혼의 성장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⁵⁰⁾ 좋은 교사는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학생들의 마음속에 넣어주며, 학생들과 사랑의 연대를 하는 교사이다.⁵¹⁾ 이러한 교사를 가까이서 만나 그의 모범된 삶을 목격한 학생들은 자신도 것처럼 살아갈 결심을 하게 된다.⁵²⁾

오늘날 우리 교육은 무너진 공교육과 추락한 교사 권위로 특징지을 수 있다. 공교육의 불신은 입시를 위한 엄청난 사교육 의존과 맞물려, 우리 교육을 더 이상 인격 도야를 아니라 무한 경쟁과 지식 주입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만들었다. 또한 교사의 권위가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은 더 이상 학생들의 삶의 모범이 되기를 포기하고, 절망감 속에서 교직을 단순한 생계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교사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실천적 지원이 필요하리라 본다. 그리고 교사 자신이 교사의 전문성과 윤리적 책임감을 높이도록 공부와 훈련과정에 충실해야 한다.

3. 전인 교육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을 전인적으로 발달 성장시키는 것이다.⁵³⁾ 전인교육이란 인간의 육체성, 지성, 감성, 영성의 고른 발달을 의미한다.⁵⁴⁾ 따라서 전인교육은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성장과정을 필요로 한다.

전인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개별적인 만남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예수는 언제나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만나는 가운데 가르쳤다. 예수가 만난 어부, 농부, 병자, 어린이, 여성처럼 배움의 기회가 적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바리사이, 율법학자, 대사제, 군인, 세리처럼 지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는 자신이 만나는 개인의 상황, 관심, 필요, 은사에 맞추어 적절한 비유와 토론을 전개하였는지를 잘

50) “좋은 교사들은 결국 단순히 가르치는 것(instruct)이 아니라 교육(educate)을 하는데 힘씁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학생들과 직접 만남으로써 그 영혼들을 빚어내고 형성해 냅니다.” Pius XII, Good Teachers, The Benedictine Monks of Solemes, Education: Papal Teachings, A.Robeschini (trans.), (Boston: St. Paul Editions, 1960), pp.483-484.

51) Pius XI, The Christian Education of Youth, The Benedictine Monks of Solemes, Education: Papal Teachings, A.Robeschini (trans.), (Boston: St. Paul Editions, 1960), p.48;

52) Pius XII, The Condition of the Christian Teacher, The Benedictine Monks of Solemes, Education: Papal Teachings, A.Robeschini (trans.), (Boston: St. Paul Editions, 1960), p.481.

53) 제2차 바티칸공의회, 『그리스도인 교육 선언』,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라틴어 대역<개정판>』,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2항.

54) 파커 파머, 『가르칠 수 있는 용기』, (대구: 한문화, 2007), 60-61쪽.

알 수 있다.

또한 전인교육은 개별 학생과 교사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을 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⁵⁵⁾ 예수에게 가르침은 배우는 이들의 능동적인 이해, 의지, 노력을 불러일으키는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졌다. 복음서에 나오는 마리아의 이야기(루카 10, 38-42), 베드로의 이야기(요한 21, 15-19)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요한 4, 7-26)의 경우와 같이, 예수는 질문, 토론, 비유,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이 스스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예수는 오늘의 멘토링 기법에서 보는 멘토(mentor)와 멘티(mentee)의 일대일 접근을 자주 하였다.

많은 비판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행 학교 교육은 학생 개인의 필요나 적성, 능력과 관심과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적용하고, 학생에 대한 개별지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의 상호 인격적인 상호 만남과 멘토링 역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결과는 학교가 더 이상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 교사는 학생 개인과 학생 가정의 문제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여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돕지 못하게 되고 학생들은 학교와 교사에 대하여 심리적·사회적 친밀성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반성할 때, 교육의 개별성과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예수의 교육 원리는 오늘날 학교의 비전인적 교육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V. 결론: 전인적 변화를 위한 교육

예수는 평범한 교사가 아니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는 하느님 나라 건설이라는 비전을 실현할 꿈을 갖고 그것을 위해 죽기까지 헌신했던 모습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그는 자기 정체성을 교사로 보다는 오히려 배우는 자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그는 하느님 아버지만이 유일한 스승이요 자신은 늘 그가 하라는 말과 행동을 할 뿐이며, 자신의 뒤에 올 성령이야말로 모든 지혜를 지닌 협조자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과 회당 그리고 모든 장소에서 신분과 나이를 초월하여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교육 방법과 비전통적인 방법을 모두 활용하였다.

예수 가르침의 핵심은 하느님 나라였다. 그 나라는 구약성서로부터 전승되어 온 ‘하느님의 직접 통치’를 의미하는데, 정의와 평화가 넘치고 모든 이의 인간적 품위가 회복되는 나라였다. 반면에 그는 전통적인 하느님 나라의 개념을 재해석함으로써, 그 나라가 아직 미완이기는 하지만 온전히 미래에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here and now) 이미(already)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였다. 그는 하느님 나라를 죽어서 갈 수 있는 어떤 ‘장소’가

55) 오인택, 앞의 글, 70쪽.

아니라 회개한 삶을 통해 지금 여기서 맛볼 수 있는 기쁨의 실재라고 설명했다. 비유를 가미한 많은 설교와 치유 기적들은 다가온 하느님 나라 안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는지를 깨닫게 하는 교육 방법이었다.

예수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는 자리를 활용하여 가르쳤다. 그는 교육의 효과에 있어서 인격적 만남과 그들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비유와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개별성의 원리). 그는 피교육자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본인들이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깨닫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자율성의 원리). 예수의 교육은 사회적 약자와 가난하고 소박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루어졌다. 어린이와 여성, 병자와 죄인들은 항상 그의 교육의 중심 대상이었고, 씨뿌리기, 뱃돌, 누룩 같은 비유들은 그들을 위한 배려있는 교육 도구였다(케노시스의 원리). 예수가 특별히 많은 비유를 사용한 점과 당시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억압하는 사회적·종교적 인습을 타파하려고 노력한 점은 매우 특이하다(독창성의 원리). 특별히 예수는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을 양성하였는데, 공동체 안에서 그는 제자들에게 스승이면서 동시에 친구와 형제로서 존재하면서 자신의 모범을 통해 교육하였다(공동체의 원리).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교육원리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특히 우리나라의 공교육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영감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는 다음 네 가지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교사 양성의 문제이다. 좋은 교사는 좋은 교육을 위한 핵심이다. 교사의 가르침과 생활은 아이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별히 교사 자신의 언행일치의 삶과 학생들, 특별히 소외되고 문제 많은 학생에게 보여주는 헌신은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깊은 인상을 심는다. 교사의 모범은 교사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재이며 교육방법이다.

둘째, 인격적 만남의 교육이다. 오늘날 보편화된 교육목표인 전인교육은 어떤 교재나 프로그램 혹은 시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인교육은 교사가 학생들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 필요에 적절한 반응을 함으로써 촉진된다. 교사는 단순히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학생의 아름다운 영혼을 형성하고 그 영혼의 성장과 자유를 위해 헌신하는 존재이다.

셋째, 참다운 교육은 공동체적 방법으로 실현된다. 공동체란 반드시 함께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공동체적’이란 교육의 주체들(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이 좋은 교육적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공유한 후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목적 실현을 위해 헌신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만일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가 제각각 다른 이해와 목표를 갖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만을 채우는데 급급한 반면 공동의 목표나 나아가 인류를 위한 위대한 비전에 대한 헌신을 조금도 하지 않으려는 교육현장은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마지막으로, 교육은 인간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변화란 교육의 효과성을 가늠하는 요체이다. 과연 변화 없는 교육 혹은 효과 없는 교육을 상상할 수 있을까. 진정한 교육은 반

드시 한 인격 안에 진정한 변화, 즉 전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예수를 만나 그의 하느님 나라 비전에 대해 배운 이들이 보여준 회개의 삶과 전인적인 변화는 오늘 우리 교육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핵심에 대해 반성하게 만든다.

참고문헌

- 게르하르트 키틀 · 게르하르트 프리드리히, 『新約聖書 新學辭典』, G. W. 브라밀리 편역, 번역위원회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6
- 구본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론에 근거한 전인교육과정 연구,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교육학 용어 사전』, 1999
- 웨일, L. J., 『기독교교육의 발생』, 이숙종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 심승환, 「공자와 예수의 교육철학에 담긴 가르침과 배움의 상보적 관계」, 『교육철학』 38,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05
- 안병무, 『갈릴래아의 예수』,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 예레미아스, J.,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 오인택 외, 『기독교교육사』, 서울: 도서출판 교육목회, 1992
- 오인택, 「기독교와 인격교육」, 『종교교육학연구』 2,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6
-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적 권고 『현대의 복음선교』 (Catechesi Tradendae, 1979.10.16 공포),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4
- 이회능, 「마태복음 25: 14-30에 나타난 예수의 교육원리」, 『기독교교육정보』 12
- 정승우, 『예수, 역사가가 신화인가』, 서울: 책세상, 2005
- 정웅섭, 「教師 예수의 교육」, 『기독교사상』 123, 1979
- 제2차 바티칸공의회, 「그리스도인 교육 선언」,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라틴어 대역<개정판>』,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 조규만, 『하느님 나라』,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5
- 파머, 파커, 『가르칠 수 있는 용기』, 대구: 한문화, 2007
- 포스터 C.R., 『신앙공동체를 위한 교육』, 고용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 프라이스, J. M., 『선생 예수』, 박영록 역, 서울: 침례회출판사, 1978
- 호온, H., 『예수님의 교육방법론』, 박영호 역, 서울: 양영각, 1984
- 홍은경, 「예수에게 배우는 멘토링 원리: 교사교육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제10권 제1호, 159-199쪽
- Buber, M., Between Man and Man, NY: Macmillan, 1965
- Carmody, J. M., Kenosis, in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New Catholic Encyclopedia (New

York: McGraw-Hill, 1967), vol.8.

Dodd, C. H., The Parables of the Kingdom,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1

Horne, H., Jesus the Teacher, MI: Kregel Publications, 1998

Magness, L.,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Gospels: The biblical basis of Christian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Nov.-Dec., 1975

Pius XI, The Christian Education of Youth, The Benedictine Monks of Solemes, Education: Papal
Teachings, A.Robeschini (trans.), Boston: St. Paul Editions, 1960

Pius XII, Good Teachers, The Benedictine Monks of Solemes, Education: Papal Teachings, A.
Robeschini (trans.), Boston: St. Paul Editions, 1960

Pius XII, The Condition of the Christian Teacher, The Benedictine Monks of Solemes, Education:
Papal Teachings, A. Robeschini (trans.), Boston: St. Paul Editions, 1960

원고접수: 2007년 11월 5일 1차심사: 11월 8일 게재승인일: 11월 18일

연구자 소개: 최준규

① 전공: 종교학 / 소속: 가톨릭대학교 전임강사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가톨릭교육, 대학행정, 국제교육

③ 주요논저: 「가톨릭학교 교사의 영성」, 「가톨릭대학의 가톨릭 정체성」, 「대학의 국제화 전략」,
「가톨릭의 사제양성: 원리와 실제」

④ E-mail: runnerchoi@catholic.ac.kr

Abstract

Jesus' Educational Principles and Their Implications

Choi, Jun-Gui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Jesus' educational principl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oday's education. Jesus' education can be characterized by his self-identity as not only a teacher, but also a learner and by teaching places including both traditional (temples and synagogues) and non traditional (mountain, street, boat, city), as well as by the content that is, the Kingdom of God. The principles of his teaching can be defined into five categories: (1) Principle of Individuality which emphasizes interpersonal encounter and each personality, (2) Principle of Autonomy which focuses on students' free-wills to accept and choose their own problems and solutions, (3) Principle of Kenosis which pays attention to the poor and outsider such as children and women, (4) Principle of Originality which re-conceptualizes the old customs and laws, and (5) Principle of Community which treats students as colleagues and friends of teachers and teachers as students role models. The Jesus educational principles can be implied for the nature of community, importance of teachers' role model, and students' development as whole-persons.

Key words : Jesus education, teacher Jesus, Jesus' educational principles, Jesus' educational methods, principle of Kenosis